

일본의 초·중등학교와 종교교육

김 세 곤
(동국대학교)

《 요 약 》

각국의 초·중등학교와 종교교육의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는 기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연구는 일본의 초·중등학교교육과 종교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일본의 초·중등학교의 현황과 교육의 전개에 대해서는 현행의 학습 지도 요령을 토대로 하여 검토 분석하였다. 거기서 제시된 주요 기본 방침 가운데 특히 종교교육과 관련이 깊다고 판단된 도덕교육과 봉사 교육의 내용을 보다 주시하면서 종교교육의 전개 과정을 교육제도적인 측면과 구체적인 실천 사례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일본의 경우 국·공립에서의 공식적인 종교교육은 금지되어 있지만 사립의 경우는 도덕 시간의 대체로 가능하다. 그러나 수험 경쟁 위주의 교육 분위기, 사립학교의 재정적인 문제, 종교교육에 대한 교원의 인식 부족과 같은 제요인으로 인해 일본의 초·중등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I. 서 언

일본의 초·중등교육은 패전 후 매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재출발하였지만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이념 하에서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열의와 교육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놀랄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초·중등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입시 경쟁의 과열화, 이지메 문제(집단 괴롭힘), 등교 거부 문제, 자살이나 부모 구타와 같은 비사회적이며 반사회적인 문제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수없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제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교육 방침과 방법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개인을 소중히 생각하고 마음이 풍성한 인간을 키우도록 제시한 현 학습 지도 요령¹⁾의 방침은 종교교육의 정신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 학습 지도 요령을 중심으로 일본의 초·중등학교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문제점을 알아본 다음에 일본의 종교교육과 관련을 지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1945년까지만 해도 그 민족의 전통에서 비롯된 신도(神道)²⁾를 다른 종교와 구별하기 위하여 「신도(神道)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공권 해석을 내리고 국가 신도에 의한 한쪽으로 치우친 종교교육을 전개해 왔으며 신도 이외의 다른 종교는 공적인 교육으로부터 일체 배제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당시 까지만 해도 천왕 중심의 일본 정부로서는 사적인 종교는 과학기술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교육으로부터 그것을 배제시키는 대신 국민적 통합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종교적 정조(宗教的 情操)³⁾를 공적으로

- 1) 일본의 각 학교가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할 때 반드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법규의 하나이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盲학교,聾啞학교, 양호학교마다 문부대신(교육부 장관)이 고시한다. 유치원의 경우는 교육 요령이 그것을 대신한다. 현 학습 지도 요령은 1989년에 개정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기본 방침을 세워 세부적인 사항이 개선 되도록 추구하고 있다. ① 풍성한 마음을 지닌 인간의 육성, ② 기초·기본의 중시와 개성교육의 추진, ③ 자기 교육력의 육성, ④ 문화와 전통의 존중과 국제 이해에 대한 추진.
- 2) 신도란 일본 민족의 신관념을 토대로하여 일본에서 발생하여 주로 일본인 속에서 전개된 전통적인 종교적 실천과 그것을 지탱하는 생활 태도 및 이념을 말한다. 그것을 크게 구분하면 신사 신도(神社 神道), 교파 신도(教派 神道), 민속 신도(民俗 神道)의 셋으로 분류된다. 신사 신도는 고신도의 시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역사적 사회적으로 신도의 주류를 이루는데 국가나 지역 사회의 단결과 통합에 깊이 관여해 왔다. 교파 신도란 일본 재래의 종교 전통을 기반으로하여 19세기 경에 일본에서 형성된 13파의 신도 교단을 중심으로 하는 신도 운동을 의미한다. 민속 신도란 민간 신앙 속에서 특히 신도와 관계가 깊은 것을 말한다.
- 3) 종교적 정조(religious sentiment)란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가치를 지닌 것에 대해서 발생하는 감정적인 통합적 전체를 의미한다. 이 경우 무신론자들이 가질 수 있는 소극적인 정조도 있을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종교적인 것에 대한 적극적인 정조만을 종교적인 정조라고 부른다. 일본에서는 종교적 정조의 개념이 특정 종교에

육성시켜 왔다. 즉 충군애국이라는 기치 아래 사적인 종교가 아닌 국가 신도에 의한 공적인 종교적 정조를 함양시킴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더욱 국가에 충성심을 강제한 특이한 종교교육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진정한 의미의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시기는 1945년 이후라고 볼 수 있으며 일본 헌법의 제20조는 그것을 더욱 확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 헌법의 이 조항은 공교육의 종교적인 중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교육 기본법⁴⁾ 또한 그 조항을 토대로 하여 일반적인 종교교육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법규에 의해 사립학교의 경우는 종파적(宗派的)인 종교교육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교과 이외의 것이라면 공립학교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의 단계에서는 즉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에 있어서도 특정의 종파립(宗派立) 학교⁵⁾의 수가 극히 적은 점을 감안하면 일본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문제는 그 나름대로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다. 이하에서는 현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본의 초·중등교육의 현실과 개혁의 동향

대한 신앙의 개념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특정 종교가 갖는 신앙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종교적 정조가 존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많은 논란이 전개되고 있고 그것이 갖는 교육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연구가 되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 4) 1947년에 제정 공포된 법률인데 전문을 포함하여 10개의 조항과 하나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본법은 패전을 계기로하여 새로운 교육의 이념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교육의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종교 교육에 대해서도 제9조의 조항에서 종교의 교육적인 의의를 인정함과 동시에 사립을 제외한 공립학교에서는 특정의 종교에 의한 종교 교육은 실시할 수 없다고 하여 교육의 종교적인 중립성을 표방하고 있다.
- 5) 일본의 종파립학교는 신사 신도 계열(神社 神道 系列), 불교 계열, 기독교 계열의 3가지 계열로 크게 구분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기독교 계열에서도 종교 교육에 대한 자세는 학교마다 큰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종파립학교로서는 유치원과 고등학교 대학이 많은 편이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비교적 적다. 그러나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학교 교육 단계를 설치해 놓은 곳도 있다. 그런 경우에도 단계별로 공립학교로부터 학생을 새로이 모집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종교 교육은 그런 학생들을 예상하여 실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일본의 종파립학교에서의 종교 교육은 그 종파 색깔이 농후하여 현재의 종파립학교에서의 종교교과의 교육은 교육 기본법 제9조의 정신을 지킨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1990, 『신교육학 대사전』. p.25.).

등을 살펴 본 다음에 공교육과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종교교육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검토하여 일본의 종교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II. 일본의 초·중등교육의 현실과 그 개혁 동향

1. 일본의 초·중등교육의 현실과 문제점

일본의 초·중등교육은 패전 후 매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재출발하였지만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이념 하에서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열의와 교육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놀랄 만한 양적인 성장을 하면서 발전해 왔다. 그 구체적인 예로 1995년 5월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수를 살펴보면 각각 14,856 교, 24,548 교, 11,274 교, 5,501 교로 조사되었다(문부성, 1996). 패전 이전까지는 특히 한정된 학생만이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중등학교의 경우도 극히 짧은 기간동안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학하여 배울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즉 고교 진학률은 현재 99%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한편 그 동안 초·중등교육의 양적인 확대에 맞추어 교육과정의 기준을 개정하고, 교직원의 처우 개선과 교원에 대한 학생 수의 비율 감소, 학교 시설의 정비 등을 통한 질적인 성장에도 괄목한 투자를 해 왔다. 그 결과 일본의 초·중등교육은 오늘날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타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위치에 있다고 해도 그다지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 일본의 초·중등교육의 현실에 있어서는 과도한 수험 경쟁, 이지메(집단 괴롭힘) 문제, 등교 거부 문제, 청소년의 비행 문제, 거기에다 자연에 대한 체험이나 생활에 대한 체험의 부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山口, 1997). 그 중에서도 특히 인간 소외나 생명 존중에 대한 무관심 등에서 비롯되는 인간성 상실의 문제는 그 피해의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일본에서는 고령화의 문제, 각분야에서의 정보화의 문제, 국제화의 진전과

같은 사회의 변화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초·중등교육은 이와 같은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96년 7월에 공표된 제15기 중앙교육심의회의의 제1차 답신에서도 교육과정심의회의의 발족과 교육 개혁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등 그 구체적인 방안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2. 일본의 초·중등교육의 개혁 동향

일본의 초·중등교육의 일반적인 개혁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1984년에서 1987년까지 3년간에 걸쳐 제출된 임시교육심의회의의 답신, 1989년에 개정된 학습 지도 요령, 1991년에 개정된 지도 요령, 1996년에 발표된 제15기 중앙교육심의회의의 답신 등의 권위 있는 회의와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교육부가 고시하는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일본의 학습 지도 요령의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일본의 초·중등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처 방안들을 알아보고 특히 종교교육과 관련이 깊은 내용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1) 현행 학습 지도 요령의 기본적인 생각

1947년 최초로 학습 지도 요령이 작성된 이래 최근까지 여러 번의 개정을 거듭해 왔는데 현행의 학습 지도 요령은 1989년 3월에 개정된 것이다. 이 신 학습 지도 요령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1990년도부터, 초등학교는 1992년도부터, 중학교는 1993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1994년도부터 학년의 진행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학습 지도 요령의 기본적인 생각과 방침은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다. 그 첫째는 풍성한 마음을 지닌 인간의 육성, 둘째는 기초·기본의 중시와 개성 교육의 추진, 셋째는 자기 교육력의 육성, 넷째는 문화와 전통에 대한 존중과 국제 이해의 추진이다. 이 4가지의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행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1, 2학년에는 생활과를 신설하

고, 중학교에는 교과 선택제의 확대와 학습도별 지도의 도입을 시도하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와 과목의 다양화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풍성한 마음을 지닌 인간의 육성을 위한 시책으로 도덕교육과 봉사 교육을 중시한다는 내용은 종교교육적인 차원과도 관계가 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언급해 보고자 한다.

3. 신 학습 지도 요령에 의한 도덕교육과 봉사 교육의 중시

1) 도덕교육의 실시와 그 진흥 방책

급속한 사회의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풍성한 마음을 지닌 인간을 육성한다는 것은 일본의 초·중등교육의 최대의 현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건전한 인간관계의 결여, 어린이들의 이지메, 비행 등의 문제 행동에 대한 욕구 조절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도덕성이 결핍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신 학습 지도 요령에서는 도덕교육을 보다 중시하도록 하는 대대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의 도덕성 발달 문제를 고려하여 도덕의 내용을 재구성하고 강화하고 있는 점, 각 학교에서는 반드시 도덕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더불어 도덕 시간의 연간 지도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여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점, 풍부한 체험을 토대로 하여 내면적으로 비롯되는 도덕성을 중시하는 점,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나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육성 등은 어린이들의 가정과 그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도덕교육을 추진하도록 하는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한편 문부성에서는 도덕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정비하기 위하여 종래부터 여러 가지의 시책을 추진하여 진흥시켜 오고 있다. 예를 들면 도덕교육 추진 학교를 지정하여 연구를 하게 함과 동시에 지역의 각계각층으로부터 도덕교육에 대한 의견을 학교의 도덕교육에 반영시킬 목적으로 각 都道府縣에 도덕교육 진흥 회의를 설치하고, 또한 1991년도부터 학교와 지역사회가 밀접하게 연계하여 읍 면 동이 일체가 되어 함께 도덕교육을 추진하는 市町村 도덕교육 추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 봉사 교육의 중시

최근 일본의 학교교육에서는 노인 인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복지에 대한 중요성이나 노인들이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넓혀 가도록 하는 한편 타인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배려나 공공을 우선하는 마음을 키우는 일, 그리고 도시화나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생활 체험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체험을 통하여 일에 대한 중요성이나 사회에 봉사하는 정신을 기르는 일 등을 어느 때보다도 중시하고 있다.

각 학교에서는 지역의 청소 활동, 공공 장소의 화단이나 꽃 가꾸기, 노인정에서의 봉사 활동을 하게 하는 등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여러 가지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학습 지도 요령에는 특별활동 시간으로 봉사 활동 행사를 명시하여 더욱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와 같은 취지를 더욱 철저하게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부성에서는 봉사교육연구협의회의 개최, 지도의 실천 사례 등을 게재한 지도 자료의 작성, 생생한 체험 활동 모델 추진 사업 등의 시책을 펴고 있다.

지금까지는 일본의 초·중등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을 토대로 앞으로의 개혁 방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종교교육의 관점에서 관련이 깊다고 판단되는 도덕교육과 봉사 교육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언급해 보았다. 이하에서는 일본의 종교교육의 현황과 실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Ⅲ. 공교육과 종교교육

일본에서는 교육의 문제를 거론할 때 최우선적으로 학교교육이 취급되는 만큼 그만큼 학교교육을 중시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제외하고서는 학교교육을 독점한다고 할 수 있는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협의의 의미로 해석되는 종교교육은 교육 기본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신앙의 자유와 정교의 분리라고 하는 두 가지의 기본 원칙에서 비롯된 것인데, 일본의 근대화를 전면에 내세운 명치 정부는 1872년(明治 5년)에 시행한 신학제에 이미 종교와 교육은 분리시켜야 한다는 영미 제국의 제도를 배워 공교육으로부터 종교를 배제시키는 정책을 취하고는 있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일본의 군국주의 고양 정책을 배경으로 하여 1935년에 문부성이 「종교적 정조의 함양에 관한 건」을 통첩하고, 일반적인 종교적 정조의 함양은 문부성의 훈령 제12호에 의해 금지되어 있던 종교적인 교육 또는 종교적인 의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공식적인 견해를 분명히 했다. 말하자면 일본 정부가 문부성의 훈령을 통해 각급 학교에 다 종교적 정조를 함양시키는 교육은 행사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당시의 일본의 학교로서는 공식적으로는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없었지만 종교적인 정조를 함양시키는 교육은 가능하다고 하는 그 훈령으로 말미암아 학교의 수업에 靖國 神社 및 護國 神社를 비롯한 일반 神社에의 참배 또는 王宮을 향해 절을 하게 함으로써 왕을 신격화시키는 교육적인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의 패망으로 인해 그것을 계기로 하여 일본 정부는 교육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대대적인 개혁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특히 교육제도의 구조 및 그 내용의 방향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끼친 것은 미국 교육사절단의 방문과 그 사절단이 작성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 중에는 종교에 관련된 중요한 권고와 조언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와 같은 개혁의 전개 과정 속에서 교육의 법제도적인 개정 또한 대대적으로 전개되는데 앞서 언급한 문부성 훈령 제12호도 재수정되어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자유화가 공식적으로 인정 되게 되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일본 헌법과 교육 기본법이 공포되어 거기에 신앙의 자유와 종교교육에 관한 새로운 방침이 제시되고 공교육과 관련된 종교의 취급에 대하여 정부의 기본 방침이 확립되었다. 또한 국회에서는 종교적인 정조 교육에 관한 결의를 새로이 하고, 교육칙어의 폐지를 결의함으로써 패전 이전까지 국민에게 강요하였던 국가 신도 사상을 부정하고 종교적인 신앙의 자유를 일반 국민에게 심어 줄 수 있었다. 그와 같은 개혁의 움직임과 분위기는 당시의 일본 학교교육의 신체제를 수립하는 데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의 서술에서도 개략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공교육에서의 종교

교육의 문제는 헌법 제20조의 신앙의 자유에 관한 규정과 교육기본법 제9조의 종교교육에 관한 규정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교육 기본법의 기본적인 정신을 축으로 하여 만든 학습 지도 요령⁵⁾을 대상으로 하여 그 속에 언급된 종교 관계의 내용을 검토해 봄으로써 일본의 초·중등학교(공교육)에서 취급되는 종교교육의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초등 학교 학습 지도 요령에 나타나 있는 종교 관계의 지도 내용

초등학교 「사회과 과목」의 학습 내용의 기술 중에 「나라(奈良)나 헤이안(平安) 시대의 정치나 문화의 형태」 또는 「기독교 전래의 모습에 대해서 주요 인물의 활동이나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이해할 것」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구절을 근거로 하여 교과서에는 불교의 전래와 그 시대의 불교 흥망의 모습, 기독교의 전래 등이 소개되어 있다. 이 사회과 과목에 나타난 종교에 관한 취급은 종교 문화에 대한 지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인데 도덕 시간의 지도 내용 가운데는 종교적인 정조의 교육을 목표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도덕 시간에 종교적인 정조의 도야를 다루는 것은 1958년도부터 도덕 시간이 설치된 이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초등학교의 학습 지도 요령에서는 사회과나 도덕 과목 이외에는 즉 음악이나 미술 또는 특별활동 등의 시간에는 종교와 관련 있는 소재나 장면을 언급한 표현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교과서 속에는 예를 들면 국어 교과서에 지장보살, 슈바이처, 헬렌 켈러와 같은 종교적인 색채가 담긴 민화나 문학작품, 신사 또는 사원과 얽힌 전설이나 동화, 祭禮 등의 내용은 약간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을 지도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를 하도록 하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2. 중학교 학습 지도 요령에 나타나 있는 종교 관계의 지도 내용

중학교 사회과의 지도 내용 중에는 야마토(大化) 조정을 취급하는 구절 속에 「당시 사람들의 신앙에 착목시켜」라든지, 나라(奈良)·헤이안(平安) 시대를 다루는 구절 속에 「불교 문화가 발달했던 배경을 이해시킨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한 「유

럽인의 내향과 그 배경」이라는 구절에는 「유럽 세계의 움직임을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을 중심으로 취급함과 동시에 유럽인의 해외 진출에 대하여 이슬람 세계와 교류 등을 근거로 이해시킨다」라는 표현이 보인다. 이 정도의 내용은 그 나라의 역사나 세계사를 다룰 경우에는 당연히 언급될 수 있는 내용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음악이나 미술에서도 종교와 관련된 소재가 실제의 학습 활동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취급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학습 지도 요령에는 이러한 점들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학습 지도 요령의 성격이나 편집 방침 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도덕에서 종교적인 도야의 내용을 규정한 부분에 대해 언급해 보면, 도덕의 지도 내용은 전부 16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9번째 항목이 종교적인 정조 혹은 그와의 관련 속에서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 항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자연을 사랑하며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할 줄 알며 숭고한 모습에는 있는 그대로 답할 수 있는 풍요로운 마음을 지니도록 한다. (자연과 인간과의 만남에 대해 생각하고 자연이나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실체에 대해 외경심(畏敬心)을 갖도록 노력한다)」. 그런데 실제의 지도 장면에서 이런 내용들을 대부분의 교사 자신은 어떻게 설명하고 가르쳐야 좋은지를 몰라서 망설이게 되는 지도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결국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교사 자신들의 연구와 식견에 맡긴 것으로 사료된다.

3. 고등학교 학습 지도 요령에 나타나 있는 종교 관계의 지도 내용

여기서는 사회과의 내용으로 6항목을 정해 두었는데 그 가운데 「현대 사회」의 지도 내용에는 보람되게 사는 것과 삶의 의미의 추구에 대해서 윤리적인 가치와 인격, 인생에 있어서 종교의 의의, 예술과 인생 등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취급하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유의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정치 혹은 종교에 관한 사항을 취급할 경우에는 교육 기본법 제8조 혹은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내용을 적절하게 학습시킬 수 있도록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지도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또한 윤리 과목의 경우에도 지도

내용으로서 자기 탐구와 사상의 원류라는 단원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 교인의 사상, 불교, 유학 등의 기본적인 생각과 인간의 자각에 대한 의의에 대하여 취급할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유의 사향을 지키도록 해 놓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고교생의 종교에 관한 학습 내용은 초 중등학교에 비해 그 폭과 깊이가 보다 심도 있게 구성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지금까지 일본의 공교육에서의 종교교육의 실태를 학습 지도 요령 속에 기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종교에 관련된 일본의 전통적인 관습, 즉 다신을 모시는 신도, 신을 모시지 않는 불교, 유일신을 모시는 기독교, 게다가 거기서부터 파생한 여러 종파의 경우처럼 신앙의 대상을 모시는 방법을 근본부터 달리 하는 종교가 일본의 경우 수없이 병존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공교육 속에 종교교육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여겨진다.

IV.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일본은 세계대전에서의 패망을 계기로 하여 교육 계획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가는 과정 속에서 종교와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행정적인 조치를 감행한 것을 엿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립학교에서의 종교의 취급에 관한 부분이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실질적인 행정적인 시책은 1949년의 문부사무차관통달(文部事務次官通達)에서 사립학교에서의 종교 지도의 자유화 방침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점을 그 구체적인 사례로 들 수 있겠다.

그런데 일본의 교육과정에서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종교 수업을 위해서는 전문 과목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것은 도덕 시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1958년 문부성령으로 정해졌다. 그때부터 초등학교에 도덕이 필수과목이 되었기 때문에 사립의 초등학교에는 도덕 과목 대신에 종교과목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중학교의 경우에도 앞의 규정이 적용되어 중학교 학습 지도 요령에서도 종교시간 설치의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경우 사립학교에서는 앞서 지적한 종교 부재의 공교육과는 달리 법적으로도 종교교육이 인가되어 종교인 또는 신도 교사가 종교교육에 종사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각 교단이 지닌 교세

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랜 전통적인 기반을 가진 신도나 불교에 비해서 역사가 짧은 기독교가 꽤 많은 학교를 전국적으로 경영하며 그 수는 전종교계 사립학교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종교 관련의 사립학교 특히 그 중에서도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나름대로의 종교교육의 이념을 충실히 이행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종교 관련의 사립학교의 수는 일본의 전학교의 약 2% 정도에 불과하고 또한 교육 대상의 대부분이 비신도라는 점에서 보면 종교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을 확립하는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보더라도 종교 관련의 사립학교도 경영상의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의 많은 난점과 방향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다.

V. 종교교육의 실천 사례

여기서는 구체적인 종교교육의 실천 사례를 소개하기 위하여 지면상과 자료상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불교계 유치원의 실례와 한 초등학교의 도덕 시간에 실시한 종교적 정조 교육의 지도 사례에 한정시키고자 한다. 또한 여기에 소개하는 내용은 일본 종교학회가 1985년에 발간한 「종교교육의 이론과 실제」에서 일부 인용하여 번안한 것임을 밝혀 둔다.

1. 불교계 유치원의 실천 사례

일본의 경우 종교 관계의 유치원이나 보육 기관에서는 「유치원 교육 요령」 또는 「보육소 보육 지침」에 제시된 보육 내용은 물론 종교적 정조를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보육 내용을 연간 계획에서부터 일일 계획안에 이르기까지 유치원의 교육과정 전체에 포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불교계의 유치원에서 볼 수 있는 종교교육의 내용은 크게 4영역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가)는 일반적이며 심정적인 종교적인 정조에 관련된 영역이다. 이 영역은 예를 들면 자연현상에 대한 경외심, 사회 주변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동물이나 곤충의 죽음 등에서 초래될 수 있는 종교적인 정조를 말한다. 두 번째(나)의 영역은 종교적인

의식에서 수반되는 종교적인 정조이다. 예를 들면 아침 조회시의 독경이나 식사시간 전에 부처님에 대한 합장이나 예배에 수반하는 경건한 기도 등을 말한다. 또한 통상적인 불교 행사로서는 석가탄신일의 꽃축제, 성도절, 열반회가 열린다. 세 번째(다)는 종교적인 행사이다. 여기서는 종파적인 특색을 볼 수 있는데 사찰의 행사에 가담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淨土眞宗系列의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報恩講, 眞言宗系列에서 하는 靑葉 축제 등을 들 수 있다. 네 번째(라)는 그 유치원 독자적인 종교 행사를 말한다.

이상의 4가지 영역의 각각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다음에 제시해 본다

1) 동식물, 천체, 기후 등에서 나타나는 물리, 화학, 생물적인 변화에 수반되는 경이로움에서 자연계의 신비성이나 불가사의함을 유아들에게 알려 초보적인 외경심을 갖도록 한다. 그 예로서 동물이나 곤충의 출생이나 변화되는 모습을 관찰하게 하고, 식물의 경우에는 식물의 꽃이 나중에 과일로 변화는 모습이나, 단풍과 같은 나뭇잎의 색깔의 변화 등을 재료로 한다. 천체의 경우에는 태양이나 달이나 별에 대해서는 애니메이션적인 시각을 보이기 때문에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햇님, 별님, 달님처럼 인격을 부여하여 호칭하는 경우가 많고 그 밝기에 따라서 기쁨이나 슬픔의 감정을 지닌다고 생각하는 어린이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신비스런 정서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의 캠프에는 빼놓을 수 없는 보육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2) 모임의 경우. 예를 들면 아침 모임의 경우에는 요일을 정해 두고 원아들이 일제히 모이는 경우, 정원에서 모임을 갖는 경우, 각반마다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놀이실의 활동 모습을 시간별로 소개하면 우선 8시 30분 : 등원, 자유 놀이 시간 9시 40분 : 놀던 장소를 청소한 후 각반으로 나누어 출결을 확인하고 세면을 시킨 후 조용히 정렬하여 놀이실에 모이도록 한다. 10시 : 모든 반을 집합시켜 아침 모임을 시작함. 원장 또는 담당 교사가 솔선하여 헌등, 헌향을 하도록 한다. 「부처님 전에」의 노래를 합장을 한 채 부른다. 10시 20분 : 합장 또는 예배를 마친 후 정렬하여 자기 반으로 돌아간다.

3) 종교 행사의 경우. 報恩講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동경의 世田谷區 せんぎょう 유치원). 9시 30분 : 본당에 참배. 엄마와 함께 참가한 후 각자 합장하고 절을 한 후에 헌향하고 헌화한다(각자 한 개씩). 10시 : 엄마는 원내에서 설법을 듣고 찬불

가의 지도를 받는다. 그 동안 원아는 ① 합동으로 예배를 드리고, ② 대표가 헌향하고, ③ 독경을 외운다(淨土眞宗本願寺派 보육 연맹에서 정한 내용임), ④ 종이로 만든 인형극을 관람하거나, 親鸞스님에 대한 슬라이드를 본다, ⑤ 어린이를 위한 설법을 듣고, ⑥ 꽃다발이나 어린이들이 제작한 공작물을 들고 가서 가까운 우체국, 파출소, 역 등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것들을 전달한다. 11시 45분 : 귀가(공양물이나 精進 요리의 도시락을 받아서 귀가한다).

4) 유치원 독자적인 종교 행사의 경우. 육아를 위한 지장(地藏)보살 축제 (동경 大田區의 光明 유치원 매년 6월 24일에 실시한다). 9시 : 한두 송이의 生花를 지참하고 엄마와 함께 등원한다. 꽃을 어머니회의 간부에게 전달한다. 10시 : 육아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는 놀이실의 전열에 어린이들이 정렬하여 앉고 그 뒤에 보호자가 착석한다. 법복을 입은 원장이 입장한다. 각반을 대표하는 원아가 헌등, 헌향, 헌공한다. 독경을 하고 나면 원장이 지장보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한다. 그 후에 원아가 헌화를 하도록 한다. 그 절차는 나이 많은 어린이와 적은 어린이가 좌우로부터 일어나와서 한 조가 되도록 하여 헌화와 합장 예배를 한 후에 손을 잡고 다른 교실로 가서 인형극 등을 본다. 그런 연후에 어머니들도 헌화와 합장과 예배를 하고 사진 촬영을 한 다음 어머니회의 교양 강좌(종교 강좌)에 참가한다. 11시 30분 : 종교 강좌가 끝난 후 헌화한 꽃을 구분하여 꽃다발을 만들어서 파출소, 소방서, 역, 초등학교, 이전의 후원회장, 동장 등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편지와 함께 전달한다.

2. 초등학교의 도덕 시간을 이용한 종교적 정조 교육의 지도 사례

이 지도 사례는 東京都 大田區立 東調布 第一 초등학교의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덕 과목 연구 수업의 하나이다. 이 학교는 일반 주택 단지의 중심에 위치하고 학생 수는 약 천명 가량으로 창립한 이래 약 백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공립학교이다. 물론 특별한 종교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 않지만 도덕 시간에 종교적인 정조를 기르는 것은 중요하다고 간주하여 지도하고 있는 점은 다른 공립학교와 다를 바가 없다.

1) 지도 사례

수업은 대개 4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주제와 주제를 설정한 이유를 설명하는 단계, 도입 단계, 전개 단계, 정리 단계의 순서로 진행된다.

(1) 주제명은 「생명의 역사」이고 주제 설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고학년이 되면 생명에 대한 신비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진다. 그러나 그것은 흥미 위주의 피상적인 것으로 생명의 존엄에 대한 신비감이나 불가사의함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조상들의 혼을 모시고 제사 지낸다」는 추석과 같은 명절은 일본 고유의 사회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무관심하다. 따라서 추석에 대해 사실적으로 취급한 자료인 「생명의 역사」를 사용하여 수업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수업의 목표는 「생명의 신비함과 불가사의함을 느끼고 맑고 깨끗한 마음을 기른다」는 것이다.

(2) 도입 단계 : ① 일상생활 속에서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한 것을 서로 이야기한다, ② 추석에 대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발표한다(자료에 도입한다).

(3) 전개 단계 : ③ 자료 「생명의 역사」(아아니 출판, 슬라이드 13분 27초 용)를 보여준 다음에 서로 이야기한다 추석에는 정말로 조상들의 영혼이 돌아오는 걸까? (자료를 이용하면서 가치를 추구한다), ④ 「자신의 생명」에 대해 작문하여 서로 이야기한다(가치의 일반화)

(4) 정리 단계 : ⑤ 조부모님들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에 대해 말한다.

2) 수업 전개에 대한 어린이들의 반응과 고찰

(1) 도입 단계에서의 교사의 발문에 대해 「여행가서 찍은 사진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사진이 찍혀 있었다」「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바람도 없는데 창문틀이 덜덜거리며 소리가 났다」와 같이 전설 속에서 나오는 식의 이야기 형태가 많았다. 거기서 자료 「생명의 역사」를 보여준다.

(2) 전개 단계에 가서는 「조상들의 영혼은 돌아오는 걸까 아닐까」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의견이 제기된다. 예를 들면, 돌아올까 아닐까는 가족들의 심정에 따른다든지, 마음속에 돌아와 주었으면 하고 기대하면 돌아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는다든지, 돌아가신 분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라든지,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돌아온다고 하는 식으로 마음이라든지 심정과 같은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한 여자 어린이가 할머니가 쓰시던 찻잔을 들고 앞에 나와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자 교실 안은 한순간 무거운 침묵으로 쌓였다. 즉 「그 찻잔은 할머니가 그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할머니께서 차를 따루어 우리 아빠에게 부어 주시든 모습을 떠올리면 왠지 모르게 그 할머니 생각이 간절해진다」

(3) 생명은 자기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면면히 이어 받은 것이라는 인식의 부족이 요즘의 어린이들이 자살이나 폭력화 경향을 나타내는 하나의 크다란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닐까? 수업을 담당한 교사는 추석과 같은 전통적인 명절 행사를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생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키고 경외심을 조금이라도 일어나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VI. 종교교육의 현실과 문제점

앞에서는 일본의 종교교육의 실태를 불교계 유치원과 공립 초등학교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통해 단편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종교와 교육이 보다 분명한 모습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학교 현장에서 교육되고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공립학교의 경우가 아니다.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일본 헌법에 의해 공립학교에서는 종교교육과 기타의 종교 행사는 금지되어 있지만 그와 같은 사항과 교육 기본법 제9조가 규정해 놓은 종교에 관한 관용과 교육에 있어서의 종교적 정조의 존중이라고 하는 점이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다 위임해 놓고 있다. 더욱이 종교교육의 실시는 교사 자신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 지도의 성사 여부는 교사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교사들의 종교적인 무관심 때문에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현실은 거의 등한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본의 사회적인 풍조가 종교를 경시하는 데에도 그 일차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중·고교의 교육이 대학 진학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일본의 교육 풍토에 그 원인을 돌리고 있다(일본종교학회 1985). 또한 전후 일본의 각급 학교(공사립 포함)의 종교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西元(1978)도 다음과 같이 그 부진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일견 신사 신도가 사실상 국교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종교교육이 실행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나 명치 시대 이후부터는 그것을 종교의 범주에 두지 않고 또한 신앙의 자유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 신도에 의한 국가주의 교육은 실시되었지만 종교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전후 법적으로도 종파적인 종교교육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저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의 하나는 시대 조류의 변화와 사학이 지니는 체질상의 문제를 들고 있고 또 하나는 사립학교 교원들의 비종교적인 성격을 사학에서의 종교교육의 부진의 이유로 들고 있다.

VII. 결어

지금까지 일본의 학교에서 종교교육이 어떤 형태로 취급되고 있는지를 법제도적인 측면과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통해서 간략히 개관해 보았다. 즉 일본의 국공립 학교에서는 공식적인 종교교육은 실시할 수 없는 대신에 사립학교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그것을 도덕으로 대치하여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현재 사립학교 중에서 종교 계열을 지향하는 학교의 수는 얼마 되지 않고 더욱이 모든 종교 관계의 사립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종교교육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대학의 진학률이 매우 높고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화 하자고 하는 움직임 속에서 공립학교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사립의 경우에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경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학력 사회의 표본이라고 불리는 일본에서 종교 관계의 학교라는 사실로 학생을 모집하기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어쩌면 종교 관계의 학교라는 문을 내리고 진학률 높은 입시의 명문고로 만드는 것이 학교의 존속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지도 모른다. 또한 종교 관계의 학교

라고 해도 종교단체가 학교를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사립학교의 설립 주체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학교법인으로 되어 있다. 게다가 종교단체와 학교법인간의 면밀한 관계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본다면 일본의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또한 교육제도상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리 밝은 편이 아니라고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 朴先榮(1981). 불교의 교육사상. 서울 : 동화출판공사.
- 朴先榮(1982). 불교와 교육. 서울 : 동국대학교부설 역경원.
- 朴先榮(1995). 현대교육의 고민과 불교의 역할. **종교교육연구 1**. 서울 : 한국 종교교육학회.
- 西元宗助(1978). 宗教と教育のあいだ. 教育新潮社.
- 日本宗教學會(1985). 宗教教育の理論と實際 日本宗教學會.
- 藤田 清(1974). 佛教的教育方法論: その反省と實踐. 天台學報 16.
- 松樹素道(1981). 佛教保育と領域社會への一 考察 - 七 - 幼児教育における 坐禪指導の實踐と考察. 鶴見大學紀要第三部 保健保育齒科編 18.
- 長納円信(1987). 公教育と宗教. 勁草書房.
- 山本哲生(1977). 教育と宗教の衝突. 論争をめぐる佛教側の對應: 佛教雜誌を中心に. 教育學 雜誌 11.
- 國立教育研究所內道德教育研究會編著(1982). 道德教育の現状と動向. ぎょうせい.
- さいとうあきとし(1993). 佛教教育の世界. 北辰堂.
- 細谷俊夫ら(1990). 新教育學大事典. 第一法規出版.
- 小口偉一・堀一郎監修(1986). 宗教學辭典. 東京大學出版會.
- 大谷大學弘報編輯委員會(1996). 學苑余話 IV. 大谷大學.

いとうずいえい(1985). 幼児教育の三要. 世界聖典刊行協會.

下村哲夫編(1987). 新教育法規基本用語辭典. 明治圖書.

文部省(1987). 小學校學習指導要領. 大藏省印刷局.

文部省(1986). 中學校學習指導要領. 大藏省印刷局.

文部省(1987). 高等學校學習指導要領. 大藏省印刷局.

文部省(1996). 文部省統計要覽. 大藏省印刷局.

太田清史(1993). 佛教教育學序說. 同朋舍出版.

山口 滿(1997). “일본의 교육개혁과 교육과정 개혁의 동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연 내용, 1997년 4월 1일 실시.